

## 『춘풍감회록』의 작가 고증과 서술 양상\*

조 유 영\*\*

### 차 례

1. 서론
- 2) 중요 기억과 체험 강조
2. 『춘풍감회록』의 작가 문제
4. 결론 : 『춘풍감회록』의 가사문학사적 의의
3. 『춘풍감회록』의 서술 양상
- 1) 기행가사적 서술 방식 차용

### 국문초록

『춘풍감회록』은 1947년에 창작된 가사로서 현재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징병 당사자의 징병 체험을 담아낸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작자인 김중욱이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증하고, 작품론적 관점에서 『춘풍감회록』의 서술 양상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춘풍감회록』의 작자인 김중욱은 1924년 경북 봉화 해저리 바래미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20세의 나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어 중일전쟁에 참전한 인물이다. 김중욱은 징병된 그 다음 해인 1945년 3월에 일본군을 탈영하여 중국군 소속으로 항일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그해 8월 광복과 함께 귀국하였다. 그리고 2

\* 이 논문은 2021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조교수

년 뒤 『춘풍감회록』을 창작하여 자신의 징병 체험을 가사로 남겼다.

『춘풍감회록』은 일제의 강제 징병에 의해 일본군으로 참전한 화자의 이동 과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문물과 풍속, 그리고 그 속에서의 소회를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전근대 시대 기행가사의 영향 속에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작품에는 김중욱의 징병 체험에 대한 중요 기억이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춘풍감회록』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청년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춘풍감회록』, 김중욱, 강제 징병, 가사, 일제강점기

## 1. 서론

『춘풍감회록』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강제 징병과 관련된 가사 작품들 중 유일하게 징병 당사자의 징병 체험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sup>1)</sup> 특히 일제강점기 말인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 청년의 파란만장한 전쟁 경험이 가사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문학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현재 일제강점기 징병사와 관련한 개인의 수기 자료 또한 그리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작품은 매우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sup>2)</sup>

1) 고순희, 『일제강점기 징병과 가사문학의 양상』,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180쪽.

2) 최근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징병과 관련된 개인 기록들이 자료집의 형태로 출간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그러나 지금까지 『춘풍감회녹』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이야 이 작품이 학계에 소개되었던 점이 『춘풍감회녹』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춘풍감회녹』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 것은 백두현의 연구<sup>3)</sup>이다. 이 연구는 국어학자의 입장에서 작품의 서지사항 및 내용, 그리고 작품에 나타나는 국어학적 특징을 제시하고, 활자본 및 영인본 원문을 함께 제시하여 향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전시가 연구에서 처음으로 『춘풍감회녹』을 논의한 것은 고순희의 연구<sup>4)</sup>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징병과 관련된 가사 작품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징병을 직접 체험한 인물이 창작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략하게나마 그 문학적 가치를 논한 바 있다. 또한 고순희의 다른 연구<sup>5)</sup>에서도 해방공간의 가사 작품들을 다루면서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이처럼 『춘풍감회녹』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매우 소략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중 하나는 가사 문학에 대한 연구의 주류적 경향이 여전히 전근대 시대 가사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시기 가사 작품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sup>6)</sup> 이와 함께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작가 문제 또한 제대

---

화성시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구술자료집1-3』(휴먼컬처아리랑, 2018)이다. 이 책에는 강제 징용 및 징병 피해자들의 구술기록들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관련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구술 기록들을 모은 책들이 편찬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백두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종욱의 『춘풍감회녹』에 대하여』, 『영남학』 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4) 고순희, 앞의 논문, 2014.

5) 고순희, 『해방 공간에 대응한 가사문학』,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6)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학계의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가사문학사에서는 근대전환기 이후 시기를 ‘가사문학의 쇠퇴기’로 이해한다.(고순희, 위의 논문, 2020, 503쪽) 따라서 근세에 창작된 가사 작품에 대한 관심은 전근대 시대 가사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계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로 밝혀지지 못한 상황<sup>7)</sup>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춘풍감회녹』의 작자를 구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작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춘풍감회녹』의 작자인 김중욱이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증하고, 작품론적 관점에서 『춘풍감회녹』의 서술 양상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고의 논의가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정체되어 온 『춘풍감회녹』에 대한 학계의 연구 또한 진전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춘풍감회녹』의 작자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춘풍감회녹』의 작자는 김중욱이란 이름을 가진 남성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춘풍감회녹』이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의 권말에는 아래 (가)와 같은 필사 기록이 남아 있어 작품의 창작 시기와 창작 의도, 그리고 작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이 노래를  
고 이슈호  
고 김춘섭 두 영전에 노하  
며 동시에 우리들을 마음  
껏 보호하여 쥘든 중국 사  
람 다암녕 보장 장여천

7)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춘풍감회녹』의 필사기를 통해 작품 창작 시기인 1940년대 중반, 20대 초반이었던 김중욱이라는 인물이 작자임을 밝히긴 하였지만, 김중욱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명하지는 못했다. 단지 백두현의 연구(앞의 논문, 2006)에서는 경상북도 봉화 출신의 인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육군 소교 오문학  
중교 이경방  
행동대 총디장 소장  
당신  
저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정희 윤이월 김중욱 씀<sup>8)</sup>

(나) 갑신년 추칠월에 남에 씌에 칼을 썰여/부모 처즌 싱별하고 영문을 차져 드리/순일을 지난 후에 평양성 떠나가니/대동강 부벽루야 을밀대 □ 작별하며<sup>9)</sup>

(다) 을유년 팔월 보름 일군이 투항하니 고진감래로다/(중략)/오미불망 고국 향히 황포강을 고이 도라/셔히에 비를 모니 오호 익지라/너 어디 도라가고 나와 함께 못 오느냐/(중략)/히풍을 크게 마저 마음을 진정하니 한라산 높흔 봉이 등천에 웃득 솟고 디소 어선이 다도회를 왕래하니 아득한 슈평선에 일발 청스 나타나니<sup>10)</sup>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노래” 즉 『춘풍감회록』은 김중욱이라는 인물이 함께 징병을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고 이수호와 김춘섭을 회고하고, 자신들을 보살펴 준 중국군 소속 여러 중국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광복 이후 귀국한 뒤인 정해년(1947년) 윤이월에 창작한 작품이다.

작자인 김중욱의 징병 시기와 징병 이후의 행적은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나)를 살펴보면 김중욱은 갑신년인 1944년 음력 가을 7월에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때 이미 아내와 자식을 둔 남성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를 살펴보면 을유년인 1945년 8월 15일 이후 김중욱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나

8) 백두현, 앞의 논문, 470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9) 백두현, 앞의 논문, 448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10) 백두현, 앞의 논문, 465-469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타남을 볼 수 있다. 일제의 항복과 함께 중국의 상해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 제주도를 지나 다도해로 들어오는 해로를 따라 귀국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귀국 노정을 보면 김중옥의 고향은 한반도의 남해안을 통해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일반인들에게 가사가 널리 창작된 지역은 경북 지역이므로,<sup>11)</sup> 김중옥의 고향 또한 같은 지역이거나 경북 주변 지역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인 백두현의 주장을 수용한다면,<sup>12)</sup> 김중옥을 경북 봉화 출신의 인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처럼 작품의 내용에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과 작품 말미의 필사기를 통해 이 작품의 작자가 경북 봉화가 고향이며 일찍 처자식을 두고,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된 20대 초반<sup>13)</sup>의 김중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는 김중옥에 대한 이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작자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품 내적인 검토보다는 김중옥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품 외적 탐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을 통해 “김중옥”이란 이름을 검색하면 총 142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사료는 모두 경북의 봉화지역에서 나온 근현대사 자료로 묶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검색된 사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중옥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편지와 祭文, 婚書 등의 일상 자료와 학교에서 받은 상장 및 학업증명서 그리고, 신상과 관련된 증명서 및 임명장 등 다양한

11) 고순희 또한 그의 연구(앞의 논문, 2020, 505쪽)에서 해방 공간에 창작된 가사 작자의 대부분이 경북지역에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2) “가사집의 출처가 경상북도 봉화라 하니 김중옥은 봉화가 고향인 듯하다.”(백두현, 앞의 논문, 422쪽.)

13) 고순희의 연구(앞의 논문, 2014, 193쪽)에서도 김중옥의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적 문서 또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김중욱이 남긴 이력서를 살펴보면 그의 삶의 궤적을 더욱 명확하게 재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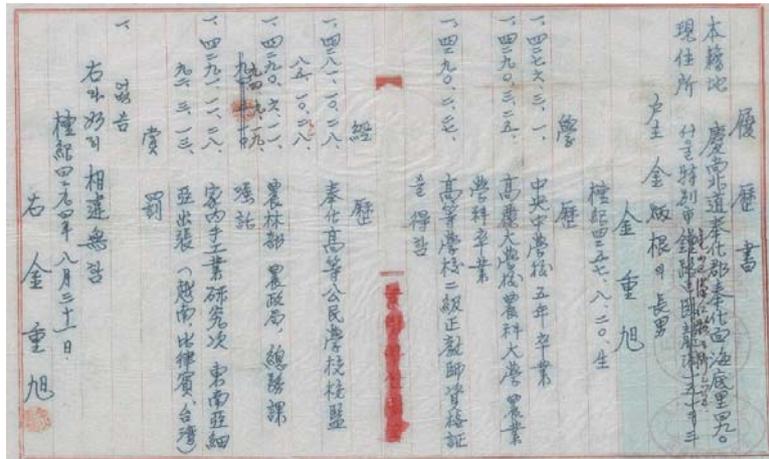


그림 1. 1961년에 쓴 김중욱의 이력서

履歷書

本籍地 慶尙北道 奉化郡 奉化面 海底里 四九〇

現住所 서울特別市 鐘路區 臥龍洞 一五一의三

戶主 金炳根의 長男

金重旭

檀紀四二五七(1924). 八. 二〇. 生

學歷

一. 四二七六(1943). 三. 一. 中央中學校 五年 卒業

一. 四二九〇(1957) 三. 二五. 高麗大學校 農科大學 農業學科 卒業

一. 四二九〇(1957) 三. 二七. 高麗大學校 二級正教師資格證을 得함

經歷

一. 四二八一(1948). 一〇. 二八. 奉化高等公民學校校監

八五(1952). 一〇. 二八

一. 四二九〇(1957). 六. 二. 農林部 農政局 總務課

九四(1961). 九. 一九. 囑託

一. 四二九一(1958). 二. 二八. 家內手工業研究次 東南亞細亞 出張(越南, 比律賓, 臺灣)

賞罰

一. 없음

右와 如히 相違無함

檀紀四二九四年(1961) 八月 三十一日

右 金 重 旭<sup>14)</sup>

위 이력서의 김종욱은 1924년생으로 본적이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해저리 490번지이다. 이 지번으로 현재 주소지를 찾아보면 의성 김씨 집성촌인 봉화군 해저리 바래미마을 土香古宅의 지번임이 확인된다.

그의 이력서에는 모두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남아 있는 여러 사료들을 함께 검토해 보면 그의 학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김종욱은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자신의 고향인 봉화내성공립보통학교를 다녔고,<sup>15)</sup> 졸업한 이후에는 서울로 유학을 떠나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중앙중학교<sup>16)</sup>를 5년 동안 다닌 것으로 보인다. 중앙중학교를 졸업한 1943년 3월 1일 이후에는 바로 대학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1953년에 고려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하여 1957년 3월 25일에 졸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보면 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기 전인 10년의 공백기 중 1948년부터 1952년까지는 고향의 봉화내성고등공민학교 교사 및 교감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력서와 사료를 통해서도 1943년부터 1947년까지의

14)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경북 봉화군 해저리 의성김씨 자료 수집정리번호 김종구 560” <이력서1> 내용을 필자가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력서>의 檀紀는 필자가 임의로 西紀와 병기하였다.

1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경북 봉화군 해저리 의성김씨 자료 수집정리번호 김종구 581” <통신부1>

16) 현재 서울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전신이며 당시는 중앙고등보통학교로 불렸다.

그의 행적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춘풍감회록』의 저자인 김중욱이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어 중국에 건너갔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가 『춘풍감회록』을 창작한 시기와의도 맞물린다. 또한 앞의 인용문 (나)를 보면 화자가 처자식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sup>17)</sup> 이력서의 김중욱 또한 현재 남아 있는 婚書<sup>18)</su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8년 중앙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15세의 나이에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춘풍감회록』의 저자인 김중욱은 1924년 경북 봉화군 해저리(일명 바래미 마을) 의성 김씨 집성촌에서 태어난 김중욱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헌적 검토와 함께 김중욱의 본적지 주소와 일치하는 토향고택의 역사를 살펴보면 『춘풍감회록』의 저자가 봉화의 김중욱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토향고택은 조선 중기 문인인 開巖 金宇宏(1524-1590)의 현손이자, 봉화 해저리 바래미 마을의 입향조인 八棼軒 金聲久(1641-1707)의 넷째 아들 金汝鎬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공간이다. 고택의 이름인 “土香”은 金炳根의 장남 金重旭(1924-1967)의 호이며, 김중욱의 장남인 김종구가 최근 현판에 새겨 명명한 것이다.<sup>19)</sup>

토향고택에 남겨진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중욱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서울의 중앙고보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sup>20)</sup> 일제

17) 『춘풍감회록』의 서사에는 “부모 처조 심별하고”라고 구절이 나타나지만,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중욱의 장녀는 1948년생이었다. 따라서 가사에 나타나는 “처자”라는 언급은 ‘가족과의 이별’을 강조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경북 봉화군 해저리 의성김씨 자료 수집정리번호 김중구 618” <혼서1>

19) 이에 대해서는 현재 토향고택 후손들의 증언으로 확인한 사항이며, 이러한 내용은 토향고택을 소개하는 웹사이트(<https://tohyang.modoo.at/>)에도 개시되어 있다.

20)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에는 김중욱이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었

말기에는 강제 징병되어 중국으로 건너가 행군 도중 탈출하여 蘇州와 杭州 등지에서 항일운동을 펼쳤고, 이후 일제의 항복과 함께 귀국한 인물로 후손들은 기억하고 있다.<sup>21)</sup> 그리고 이러한 후손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중욱의 가족관계와 생애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표 1. 김중욱의 가족 관계와 생애

가족 관계	생애
1) 김중욱의 부인 성명과 생몰년 - 부인 강인희 1924년생, 2010년몰	- 1924년 출생 - 봉화 내성 공립 보통학교(1932-1937) - 부인 강인희와 혼인(1938) - 서울 중앙고보(1938-1943)
2) 자녀들의 성함과 생년 - 장녀 : 김규진 1948년생 - 차녀 : 김위진 1949년생 - 장남 : 김종구 1952년생 - 차남 : 김현구 1953년생 - 삼남 : 김용구 1956년생 - 사남 : 김진구 1957년생	- 징병(1944-1945) - 『춘풍감회록』 창작시기(1947) - 봉화내성고등공민학교 교사 및 교감(1948-1952) - 고려대학교 농학과 재학(1953-1957) - 농림부 농정국 총무과(1957-1963) -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1964-1967) - 1967년 심장질환으로 사망

이러한 관련 문헌 기록들과 후손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춘풍감회록』의 작자는 근세 경북 봉화 바래미 마을에서 태어난 김중욱이라는 인물이다. 그리고 1947년에 창작된 『춘풍감회록』은 김중욱이 1944년 20세의 나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어 중일전쟁에 참여하였다가 탈영하여 1945년 8월 광복과 함께 고향으로 귀향하는 과정을 시간적인

던 사실을 확인해 주는 다수의 사료가 존재한다.

21) 필자는 현재 토향고택에 남아 있는 후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이는 김중욱의 장남인 김종구씨이며,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2021. 11. 26 ~ 12. 2. 사이에 이루어졌다.

순서에 따라 서술한 가사 작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 3. 『춘풍감회록』의 서술 양상

#### 1) 기행가사적 서술 방식 차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47년에 창작된 『춘풍감회록』은 경상북도 봉화에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20세의 나이에 일제의 강제 징병에 의해 중일전쟁에 참여한 식민지 청년의 징병 체험과 그 기억을 가사의 형태로 남긴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전체 구성은 서사-본사-결사의 일반적인 가사 구성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서사에서는 1944년 가을, 일제의 강제 징병에 의해 평양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는 과정이 나타난다. 본사 전반부에서는 일본군 부대와 함께 중국 내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경험한 여러 장소와 견문들이 작자의 소회와 함께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일본군 부대를 탈영하여 중국군에 가담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결사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작품에 나타나는 김중욱의 행적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sup>23)</sup>

22) 고순희 또한 선행연구에서 『춘풍감회록』의 작품 내용을 보면 작자인 김중욱은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된 이후 자신의 군대가 거쳐 간 행로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서술하고 있어 중국 기행가사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앞의 논문, 168쪽)

23) 백두현본 『춘풍감회록』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표를 구성하였다.

표 2. 「춘풍감회록」의 내용 구성

구분	행	내용	공간 이동
서사	1-9행	天運에 순종하여 갑신년(1944) 秋칠월에 징병된 후 평양에서 10일 정도 훈련을 받고 신의주로 떠남	평양
본사	10행-14행	기차를 타고 청천강과 압록강을 건넌	청천강-압록강
	15행-48행	압록강을 건넌후 중국 동북부를 지나 천진까지 기차와 차를 타고 이동 중 다양한 경물을 봄	중국 안동현(단동)-봉천-금주성-산해관-홍안령-열하-란하-백하-천진
	49행-58행	창주에 도착하여 전투에 돌입하고 전쟁의 참상을 목도함	창주
	59행-73행	황하를 건너 제남, 서주를 거쳐 남경에 도착하여 여러 경물을 봄	제남-서주-포구-남경
	74행-79행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 무한에 도착하여 소동파의 <적벽부>를 떠올림	양자강-구강-무한
	80행-92행	무창에 진을 치고 대기하던 중, 군령을 받아 포군으로 행군하여 이동	무창-포군
	93행-123행	탈영하여 높은 산 무덤 속에 은신하였다가 날이 밝자 산을 내려와 중국인 마을에 도착하여 환대를 받고 중국군 병영을 찾아감	백석-중국인 마을-중국군 병영
124행-139행	다압령으로 이동하여 한 달 동안 중국인들과 생활하다 중국군 군영에서 장교로 사령을 받음. 선무조로 편성되어 반년 동안 일본군과의 전투를 수행	다압령-중국군영-전장	
결사	140행-172행	을유년(1945) 팔월 보름 일제의 항복으로 중국군과 이별하고 소주성을 거쳐 상해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지나 다도해를 통해 귀국	소주-상해-서해-다도해-귀국

위의 표를 보면 김종욱은 1944년 음력 7월에 징병되어 평양에서 10일 정도 훈련을 받은 후, 기차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동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압록강의 접경 지역인 중국 안동현에서부터 봉천과 산해관을 거쳐 천진과 창주에서 중국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루고, 중국의 남방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경에 도착한 이후에는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 무창에 진을 치고 포군으로 이동하였다가 기어코 일본군에서 탈영하여 이후 중국군에 가담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후 김종욱은 중국군의 선무조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치다가, 1945년 광복 이후 상해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거쳐 귀국하였다.

어와 괴이하다 청이홍상 단발머리/풍물도 기묘할사 산천조차 별경이라/일대 장강 사이 노코 조물의 변화함이/이 어이 신비한가 경탄할 이 이로다/ 잠시를 머무려다 갈 길을 직촉하여/안동현 떠나서니 일모 천리 호고/홍진 광야에 오곡이 파도 친다/안전에 닢타남은 처처 기관이오/곳곳 초견이라 (중략) 봉천과 금주성을 몽둥에 흘켜보고/산희관 당도하니 연연한 성벽이/준영 티산을 상산에 장사처럼/서북을 기여가니 쾌지 장식라/진시황에 말리장성 진경코 이거시라/기천연을 지났건만 상유당당 하니/영웅의 경영함이 장함에 놀랫노라<sup>24)</sup>

인용문은 화자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온 후 안동현으로부터 산해관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의 여러 견문을 서술한 부분이다. 인용문에서 화자는 압록강을 건넌 후 만난 중국 사람들의 특이한 외모와 중국 풍물의 기묘함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일본군의 이동 경로에서 보게 된 만주의 넓은 들과 오곡의 모습들, 야간에 지나게 된 봉천과 금주성, 그리고 만리장성의 시작점인 산해관과 서북으로 길게 뻗은 장성의 모습을 통해 진시황의 영웅적 면모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처럼 인용문에서는 일제의 강제 징병으로 중국으로 끌려가는 화자의 처지보다는, 이동 과정에서 만나게 된 중국의 여러 경관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자의 소회를 중심으로 작품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백두현, 앞의 논문, 449-451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차창을 건넌고 용력을 가다듬어/과거사 물니치고 오는 시름 싱각하  
 니/싱스 이로가 흥동에 관연하여/니 맘이 탁연하니 갈 곳 아라 무엇하리  
 /촌각을 닳투어서 갈대로 가다 보자/관하를 건너서서 빅하에 당도하니/  
 고루 대하가 반공에 결비하고/차마 왕래가 변화하니 불문까지 천진이  
 라<sup>25)</sup>

위의 인용문은 중국 천진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고뇌를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장으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화자는 과거 일들에 대한 생각과 생사의 갈림길에 선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냥 인정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시름은 그냥 묻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후에는 古樓와 大河가 펼쳐져 있는 천진의 풍경에 관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춘풍감회록』은 비록 1947년에 창작되긴 하였으나, 전근대 시기 기행가사의 전통과 영향 속에서 창작된 작품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sup>26)</sup> 『춘풍감회록』의 서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이국적 풍물과 戰場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징병인의 소회이다. 그리고 김중욱에게는 중국의 여러 곳을 이동하는 과정이 결국 전대 기행가사의 여정과 유사한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행가사적 서술 방식의 차용은 자신의 징병 체험을 순차적 시간에 따라 회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비록 전대 기행가사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 는 하나, 觀

25) 백두현, 앞의 논문, 453-454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26) 김중욱의 장남인 김중구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시 의성김씨 집성촌인 봉화의 바래미 마을에는 가사를 즐겨 짓고 읊던 이들이 많았다고 하였으며, 김중욱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김중욱이 남긴 작품은 <춘풍감회록> 한 작품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고택 내에는 가사 자료들이 현재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토향고택 뿐만이 아닌 바래미 마을 내 여러 고택들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遊나 流配, 使行 등과 같은 전근대 시대의 여행과는 달리 강제 징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이루어진 여정이라는 점에서 전대 기행가사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 2) 중요 기억과 체험 강조

김중욱의 『춘풍감회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징병 체험과 중국 내 이동 과정을 기행가사의 서술 방식을 차용하여 제시하며,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중국의 풍물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 과정에 대한 서술과 함께, 자신의 징병 체험에서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건이나 행위들을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서술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고국 떠나 반삭 만에 창주에 이르니/암야 삼경에 총검이 서리 차고/  
원산에 포성이 은은하다/잠만 깨면 총을 미고 총만 노면 잠을 자니/창검  
에 피난하고 미인에 굶주려서/맹호 갖튼 남아 이천 북방으로 적을 마저/  
적전에 입접하니 사면포성이 풍진 절□□□□/포연탄우 □□□□ 반공  
에 작열하여/천봉지괴 수라장이 원종일을 거치다가/우렁찬 함성 속에  
추적 원방하고/파옥 발화 강탈하니 잔인포악이 극이라<sup>27)</sup>

위 인용문은 중국 창주에 도착한 화자의 부대가 이곳에서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일을 서술한 부분이다. 고국을 떠난 지 15일 만에 도착한 중국 창주는 중국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쟁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밤중 총검을 매고 경계를 서는 상황, 북쪽 방면에서 적을 맞아 벌인 전투의 모습과 함께, 중국 민가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며 강탈하는 잔인 포악한 일본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겪었던 수많은 전투 중 창주에서 겪었던 전쟁 체험만이 작품 속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sup>28)</sup> 이는 창주 전투가 일본군

27) 백두현, 앞의 논문, 454-455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으로서 그가 처음 겪었던 전투였기도 하고, 일본군의 잔악한 행위를 처음으로 직접 목도한 전투였기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작품에서 창주 전투만이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결국 작가에게 이 전투가 자신의 징병 체험에서 중요한 기억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군비를 가다듬고 횡군을 이르켜서/포군에 당도하니 일몰서산에 원춘  
 픽성이오/믹전 산야에 석연이 잘들렀다/로방에 찢는 꽃과 충임의 우는  
 식는/사지를 행하여서 칙죽 아래 염소처럼/이식 업시 발을 옮겨 묵묵히  
 거러 가는/슈천 장사 맘을 찢러 향슈에 잠겨 주니/니 맘이 처연하여 갈  
 길이 아득하다/슈일을 지난 후에 빅석의 둔을 치고/피로를 고칠 적에 일  
 싱디사 결단하니/천지가 암암하고 심장이 고동 쳐서/마음을 잡을 일이  
 아마도 아득하다/ 싱사가 일반이니 가다가 아모 디나/청산의 집을 지어  
 록슈에 물을 먹고/화조를 벗을 삼어 죽은드시 사러 보자/마음이 이정하  
 니 갈 길이 확연하다/사면초가에 교묘이 틈을 타서/일좌 고산에 이슬을  
 피히터니/사고적료 무덤 속의 복두가 교결하다/니 고향 잇는 곳은 저 칠  
 성 아래엿만/조물이 시기하고 직신니 저쥬하여/연운 만리에 소식이 돈  
 절하/니 아즉 못을 앓겨 천명이 다하다도록/사라져 도라 가자 굿게굿  
 게 손을 잡고/윈 경신을 덕에 쓰다 숨결 업시 안젓더니/동방이 이빅하고  
 산식이 노래함애/굽쥬린 비를 쥐고 일산의 기여 오니/일게 노옹이 디성  
 질쥬라/후사를 넘어하여 추격 기후하여/일촌에 이르니 인영이 적적하고  
 /향게 로파가 피아이 바라본다/기아를 형용하여 로픽 향스 디호에/수십  
 청년이 일직 하산하여/지필문답의 이사 상통하니/피등이 디히하여 쥬육  
 상디어늘/괴음 다식하고 후사를 이론하여/정형을 살핀 후에 일인을 인  
 도하여/병부를 차져 가니 흡연 우디하여/보호를 승낙터라 오희라 인명  
 이 직천토다<sup>28)</sup>

28) 작자가 일본군과 중국군에 참여하여 겪은 여러 전투 중에서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한 창주에서의 전쟁 체험만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용문 외에 다른 전투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전고미문 수라장이 구사일싱하여 근근이 보존할 지”나, “창검을 다시 들어 일군과 접전할 지 날마다 빅여리를 반년이나 거렸더니” 정도로 그가 겪었던 전투 상황에 대한 서술이 간략하게만 정리되어 나타난다.

위의 인용문은 김중욱이 일본군을 따라 양자강을 거슬러 포군이라는 지역에 도달하여 머무르던 중 탈영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강을 거슬러 포군에 도착한 화자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자는 일본군에서 탈영하여 죽은 것처럼 숨어 살기를 결심하는데, 이후 김중욱은 백석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잠시 휴식을 가지는 틈을 타 부대를 탈영한다. 그는 탈영 후 높은 산의 무덤에 숨어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무덤 속에서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보며 고향으로 살아 돌아갈 것을 다짐한다. 이에 날이 밝자마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에서 내려 오게 되고, 우연히 만난 늙은 중국인을 쫓아 그가 사는 마을에 다다르게 된다. 그곳에서 현지인들에게 응수한 대접을 받고 그들과 후사를 의논한 후, 중국군을 찾아가 보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탈영 과정과 중국군으로의 귀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이 부분은 『춘풍감회록』에 담겨 있는 징병 체험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탈영 과정은 그에게 귀국 후에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남겨진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극적 서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유년 팔월 보름 일군이 투항하니 고진감래로다/고국산천 부모쳐자  
천상혈연니 천지조화로/악수상봉 기약하니 히히통이라/비희가 교집혀  
눈물이 압흘 가려/전전불미허니 시야장반이라/너가 사러 여기 있나 원  
혼니 안젓느냐/쳐량한 종소리에 등불을 다시 발켜/파연의 떡을 가려 심  
중 소회 그려 내여/우리 부모 계신 곳에 나의 입이 잇는 곳에/하로 밧비  
보닉고져 촌개야 어서 우리/지구를 빨니 돌려 날이 식게 하려무니<sup>30)</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중국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던 중 1945년 8

29) 백두현, 앞의 논문, 459-463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30) 백두현, 앞의 논문, 465-467쪽. 『춘풍감회록』 영인본.

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김중욱의 모습이 나타난다. 작품에서 그는 일본군이 투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고국에 있는 부모와 처자를 상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위해 한밤중에 등불을 켜고 먹을 간다. 그리고 밤새워 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날이 밝아야만 하기에 새벽을 알리는 촌개가 어서 울기를 바란다. 인용문은 중국군에 귀순하여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던 날들 속에 갑작스레 광복을 맞이한 김중욱의 감격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은 결국 그가 겪었던 중국에서의 중요 기억이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춘풍감회록』의 서술 양상은 강제 징병에 의해 일본군으로 참전한 화자의 이동 과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문물과 풍속, 그리고 그 속에서 작자가 느낀 소회를 한편의 기행가사처럼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정 중심의 서술과 함께, 강제 징병에 의해 끌려온 김중욱의 상황과 그 속에서 겪게 된 일련의 개인적 경험들이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서술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군의 잔학함을 처음 목도한 창주 전투와 생사의 기로에서 일본군영을 탈영하는 숨막히는 과정들, 그리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광복을 맞이한 그날의 감회들과 같은 경우에는 귀국 후 김중욱이 자신의 징병 경험을 떠올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었던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춘풍감회록』은 결국 자신이 경험했던 징병과정들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일부분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서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제하 강제 징병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4. 결론 : 『춘풍감회록』의 가사문학사적 의의

『춘풍감회록』은 1947년에 창작된 가사로서 현재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징병 당사자의 징병 체험을 담아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춘풍감회록』의 작자는 작품의 필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대 초반의 김중욱이라는 인물이다. 김중욱은 1924년 경북 봉화 바래미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20세의 나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어 중일전쟁에 참전한 인물이다. 그리고 김중욱은 징병된 그 다음 해인 1945년 3월에 일본군을 탈영하여 중국군 소속으로 항일전쟁에 참여하였다. 이후 중국군의 선무조로 활약하던 중, 그해 8월 광복을 맞이하여 서해 뱃길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귀국 2년 뒤 『춘풍감회록』을 창작하여 자신의 징병 체험을 가사로 남겼다.

『춘풍감회록』은 일제의 강제 징병에 의해 일본군으로 참전한 화자의 여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문물과 풍속, 그리고 그 속에서의 소회를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 작품이 전근대 시대 기행가사의 영향 속에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작품에는 김중욱의 징병 체험 중 중요 기억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확장적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춘풍감회록』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청년의 강제 징병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유일한 가사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사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이 강제 징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이 전대 기행가사의 형식을 차용하긴 했지만, 자신의 징병 체험 중 중요 기억을 중심으로 사건을 생동감 있게 재구성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징병당사자의 구체적인 행적과 고뇌를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춘풍감회록』은 경북 봉화 출신의 근대교육을 받은 남성에 의해 창작된 가사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사문학사적 특이점을 가진다. 현재 남아 있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가사 작품들 대부분은 특정 지역의 여성들에 의해 창작된 내방가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전통 시가 양식인 가사의 영향력은 근대 문학 양식의 수용과 근대교육의 확산으로 점차 축소되어 가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사의 유효성은 20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가사라는 전근대 문학 양식이 근대인들에게도 자신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는데 유효한 갈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20세기 중반 가사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이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사문학의 쇠퇴기roman 이해해 온 이 시기 가사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고순희, 『일제강점기 징병과 가사문학의 양상』,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179-202쪽.
- \_\_\_\_\_, 『해방 공간에 대응한 가사문학』,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477-509쪽.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
- 백두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종욱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 『영남학』 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419-470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3판), 지식산업사, 1994.
- 토향고택(<https://tohyang.modoo.at/>)
- 화성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구술자료집1-3』, 휴먼컬처아리랑, 2018.

<Abstract>

## The author's research and narrative patterns of 『Chun-Pung-gam-hoe-nok』

Jo, Yu-Young\*

『Chun-pung-Gam-hoe-Nok』 was created in 1947, and is currently the only work that contains the conscription experience of Japanese colonial era the conscription person. In this paper, the author of the work, Kim Joong-wook, is specifically examined and the narrative aspects of 『Chun-pung-Gam-hoe-Nok』 are discussed togeth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ork.

Kim Joong-wook, the author of 『Chun-pung-Gam-hoe-Nok』, was born in 1924 in Baraemi Village in Haejeori, Bonghwa, Gyeongsangbukdo, and was forcibly conscripted at the age of 20 in 1944 to participate in the Sino-Japanese War. In March 1945, the year after Kim Joong-wook was conscripted, he fled the Japanese army and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anti-Japanese war as a member of the Chinese army, and returned home with liberation in August of that year. And two years later, he created 『Chun-pung-Gam-hoe-Nok』 and left his conscription experience in the Gasa.

It can be seen that 『Chun-pung-Gam-hoe-Nok』 focuses on the movement process of speakers who participated in the Japanese military by forced conscription. It can be seen that important memories of Kim Joong-wook's conscription experience are described

---

\* Jeju National University

in detail and expansively.

Key Words: 『Chun-pung-Gam-hoe-Nok』, Kim Joong-wook, Forced conscription, Gasa. Japanese colonial era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4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

